

부활주일/2021년 4월 4일/세례와 견신례, 성만찬

행전: 사도행전 10,34-40

서신: 고린도전서 15,1-8

복음: 요한복음서 20,11-18

마리아 -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

주일 새벽,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자 이름을(마 28,1),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명의 여자 이름을(막 16,1),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세 명의 여자 이름과 함께 ‘다른 여자들’(눅 24,10)도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은 단 한 사람, 막달라 사람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복음서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라는 성은 그녀가 가버나움 남서쪽 7마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막달라 출신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악령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일곱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 여자였습니다(눅 8,2).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고(마 27,56),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었습니다.¹⁾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다고 생각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

1)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II, 최흥진 역, CLC, 2013, 1808.

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말합니다. 놀란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과 몸을 찢던 삼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요 20,10).

믿음이 허상으로 드러나고, 소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이전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혹시’가 ‘역시’로 끝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 분이 예수님인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묻는 사람이 동산지기인줄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 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면 마리아가 몰라볼 리 없지요. 그런데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신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이나 믿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²⁾ 그렇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

2)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II, 최흥진 역, CLC, 2013, 1855.

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하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란 마리아, 그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부른 칭호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유명사이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보편적 이념이나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 일반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여자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고유한 인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적 삶 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추상적인 존재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주님을 선한 목자에 빗대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요 10,3)고 말한 것이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는 선한 목자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요 20,21-22).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사후 세계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죽은 후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부활은 시체의 소생이냐, 불멸하는 영혼의 승천이냐를 설명하는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념이나 교리로서의 부활론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어야 부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참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은 단지 관념적 교리이거나, 불멸에 대한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부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고난 속에서 희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단언하건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고전 15,31)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요 20,17-18).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자를, 그의 부활사건의 최초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의 첫 증인으로 병으로 고통 받고, 귀신들려서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 경멸과 배척 속에서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전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에게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을 것이며, 아들이 가졌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요 20,23).³⁾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빈 무덤 속

3)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II, 최흥진 역, CLC, 2013, 1866.

에서 부르셨듯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날이기도 하지요. 부활절은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기고(고전 15,26), 만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는 날입니다(행 10,36). 그러므로 평화가 위협받는 곳, 생명이 파괴되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보냄 받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의 부활절입니다.

<설교 후 기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모든 것을 발아래에 굴복시키신 만유의 주님(고전 15,24-27), 지금 지구촌을 죽음의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주님의 창조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지금 병으로 고통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보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낮게 해주시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생명의 주님, 바치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해, 우리 가운데 태어난 한수아 아기(1월5일생)와 아기 세례를 받은 문세라와 박지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아기들과 부모에게 강복하시어,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아기를 양육하게 하시고, 아기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는 자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올 해에, 하나님 품에 안긴

1. 고 최기남 집사/ 2. 고 안덕환 교우/ 3. 고 이경연 집사/
4. 고 임한종 장로/ 5. 고 김흥수 권사/ 6. 고 이규량 집사/
7. 고 박종재 성도/ 8. 그리고 고 김영관 장로를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간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지키다가, 앞서 주님 나라에 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그들과 유족에게 강복하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 돌아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유족은 이들의 기도를 힘입어,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주님과 고인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가연 성도와 이주연 성도,

그리고 견신례를 받은 경혜현/ 김윤곤/ 류상현/ 박한승/ 손수인/ 양희수/ 왕지원/ 이진성/ 그리고 임성호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례와 견신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이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날, 특별히 미얀마 폭력사태의 종식과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 만들기 위해 투쟁하면서 고난 받는 이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